식품의약품안전처 열린마루

2019년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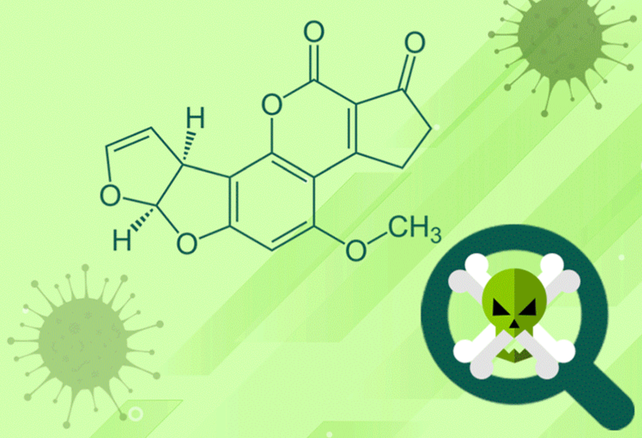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The 안전한 식약

줌인식약

아플라톡신 바로 알기!



정책브리핑

내가 먹는 사과 괜찮을까?



건강꿀팁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



클로즈업

제18회 식품안전의 날



The 건강한 국민

The 행복한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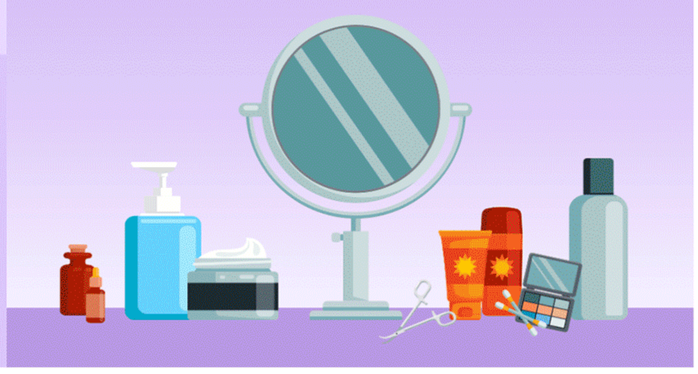
신통방톡

골다공증약 복용 시 주의사항



식약처스케치

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줌인식약

아플라톡신 바로 알기!

가열에도 끄떡없는 아플라톡신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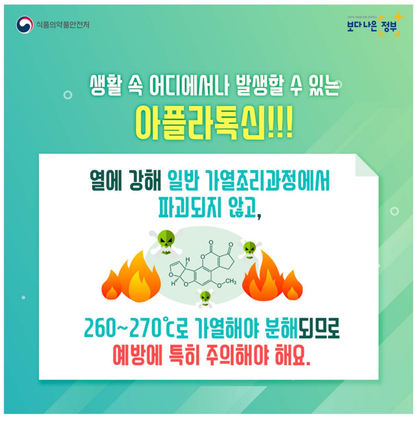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나은 정부
아플라톡신 예방을 위해 식품을 보관할 때는
하나!
곡류나 견과류는
10~15℃에서보관
둘!
옥수수나 땅콩은
껍질째 보관
먹기 직전에 껍질 제거
셋!
먹다 남은 식품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


음식을 섭취할 때는
하나!
곰팡이가 핀 식품은
섭취 금지!!
둘!
벌레 먹은 식품은
섭취 금지!!
셋!
섭취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나은 정부
생활 속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아플라톡신!!!
열에 강해 일반 가열조리과정에서
파괴되지 않고,
260~270℃로 가열해야 분해되므로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나은 정부
식품 중 곰팡이독소별 오염수준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전문정보 > 잔류 유해 물질정보 > 식품중유해물질간편검색
전문정보
잔류 유해 물질정보
식품중유해물질간편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웹진 <열린마루>
www.mfds.go.kr/webzine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나은 정부
OPEN

정책브리핑

내가 먹는 사과 괜찮을까?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농약 PLS 제도. 허가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죠.
PLS 제도로 더욱 안전해진 먹거리! 이제 걱정 말고 맘껏 드세요~



건강꿀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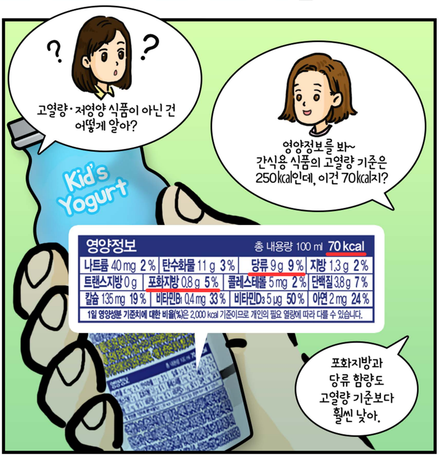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

어린이 간식거리 구매할 때 무엇을 확인하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웹진 <열린마루>
www.mfds.go.kr/webzine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나은 정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개방이용허락

클로즈업

제18회 식품안전의 날

2019년 5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이 펼쳐진다는 거 아세요?
바로 제18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예요. 다양하게 즐기고, 좋은 추억 만드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열린마루

2019년 4월호

신통방톡

골다공증약 복용 시 주의사항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등 안전한 복용법 체크!



식약처스케치

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맞춤형 화장품 제도 본격 시행(2020년 3월)을 앞두고 2019년 3월 28일 열린포럼을 개최했는데, 현장은 열 그대로 인산인해 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소통 현장으로 출발~~~

주제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입니다. 우선 맞춤형 화장품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자가 수입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말합니다.
화장품의 내용물을 조금씩 나눠 구매할 수 있다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네요. 하지만 내용물이 다른 화장품을 혼합한다고 하니 약간 걱정되기 하죠? 하하! 많은 취재진과 관계자, 소비자가 현장을 찾은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우선 이오례레시피 박원석 소장, 성신여대 김주덕 교수, 식약처 김성진 과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원석 소장은 '국내외 맞춤형 화장품 사례', 김주덕 교수는 '맞춤형 화장품 시장 전망 및 활성화 방안', 김성진 과장은 '맞춤형 화장품 제도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어요.



이오례레시피 **박원석** 소장

서비스 형태별 맞춤형 화장품 사례
온라인 방식의 상담 및 주문 허용 등 제언



성신여대 **김주덕** 교수

맞춤형 화장품 혼합 시 주의할 점, 안전성 검토 필요사항
IT 기술을 활용한 신뢰도 분석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



식약처 **김성진** 과장

맞춤형 화장품 판매 추가허용 경과 및 업법화
세부내용 소개
향후 추진계획 안내

이어서 맞춤형 화장품 관련 전문가 패널토의가 있었습니다.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엘오케이 임서영 팀장은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어요.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조제관리사가 만든 맞춤형 화장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료를 만든 제조업자, 원료를 맞춤형으로 혼합한 조제관리사, 혼합을 요구한 소비자 등 책임소재에 저리 과정이 불명확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규제와 관리방식을 옴춤려 살펴야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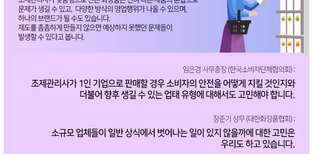
맞춤형 화장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본적인 책임은 조제관리사에게 있지만, 업체도 원료관리 등에 대해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뿌데가 되는 내용물에 일부 원료, 성분을 추가하는 제한된 형태이므로 품질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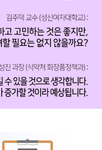
엘오케이 **임서영** 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업계에게 위험을 관리하고 있고, 매장 직원에게 회사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안전에 대한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신뢰라고 생각해요. 신뢰를 얻게 많도록 다양한 종류 제품으로 대해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제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창석자들 간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혼합 시 안전성 및 부작용 발생 시 책임소재, 맞춤형 화장품 판매 관련 기대 및 우려, 조제관리사 자격증 시험, 화장품 시장 활성화 관련 제언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혼합 시 안전성 및 부작용 발생 시 책임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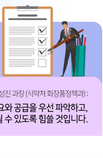
청보성모 산업연구원 (KOTTI 시장연구원):
원료를 혼합한 조제에는 폐전반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혼합 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사후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주덕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혼합 시 유화 자체가 깨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안정성·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지 중요하죠.

최정애 센터장 (소비자리함께):
혼합한 화장품 사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소비자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입법화할 때 책임소재 부분을 잘이 고려했으면 합니다.

김성진 과장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맞춤형 화장품은 혼합 원료의 종류나 함량 범위 등을 정하고, 케이스를 한정해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제조판매업자가 사전검사와 시뮬레이션을 하고, 한정(매장)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조제·판매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매자인 조제관리사가 책임지야 합니다.
안전이나 소비자 권리 확보는 식약처에서도 기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으로 유념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 관련 기대 및 우려



조윤미 대표 (C&I소비자연구소):
조제관리사가 맞춤형으로 만든 화장품은 전혀 다른 제품의 혼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의 영업행위가 나올 수 있으며,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를 혼종적이게 만들지 않으면 예상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은경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제관리사가 1인 기업으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와 더불어 향후 생길 수 있는 업태 유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장준기 상무 (대한화장품협회):
소규모 업체들이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주덕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사전에 변수나 우려사항을 점검하고 고민하는 것은 좋지만, 시행 전부터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김성진 과장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화장품 판매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의 피부 타입, 특성 등에 맞는 제품 구매로 고객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조제관리사 자격증 시험



김주덕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조제관리사 자격증 시험 시행을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준비하는 사항들을 위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진 과장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조제관리사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우선 파악하고, 난이도 조절 등 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화장품 시장 활성화 관련 제언

김정하 이사 (뷰케이유니버셜):
우리나라 화장품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보호를 하되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김성진 과장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안전 측면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패널토의 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이한석 교수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소통 현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이한석** 교수

맞춤형 화장품은 약사처럼 조제관리사가 마음대로 원료나 성분을 섞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미생물 안전성이 가장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의 안전이 보장되고, 여러분의 관심이 지속되는 한 열린포럼은 계속됩니다. 부우욱~